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도참고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2022년 5월 21일(토) 오전 10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22. 5. 21.(토)	담당부서	미주통상과
담당과장	이승헌 과장(044-203-5650)	담 당 자	이듀정 사무관(044-203-5651)

바이든 대통령 訪韓 계기, 「韓美 상무장관 회담」 및 「韓美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개최

- 양국 상무장관, 「공급망 · 산업 대화」 MOU를 체결, 동 협의체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명실상부한 양국간 공급망 · 첨단기술 협력 플랫폼으로 운영하기로 합의 -

- 라운드테이블에서는 반도체 · 배터리 · 전기차 · 청정에너지 분야의 양국 주요 기업이 공급망 · 투자 · 기술 협력을 확대하여 기술 파트너십으로의 발전에 기여하자는 데 공감대 -

- 최근 한미 양국의 투자는 공급망 · 첨단기술 협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진행중 -

❶ 우리 기업의 對美 투자는 미국 시장 선점과 韓제조+美기술 협력을 위한 선제적 투자

❷ 우리 기업은 공급망 생태계 구축 및 기술 · 인력 · 인프라 강화를 위해 국내 투자도 지속 확대 ('30년까지 반도체 업계의 510조원 투자계획 등)

❸ 美 기업도 반도체(램리서치, 온세미컨덕터, 듀폰), 바이오(싸이티바, 써모 피셔), 디지털(넷플릭스) 등 첨단분야에서 지속적으로 對韓 투자 진행중

□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바이든 美 대통령 한국 순방(5.20~22) 계기, 美 **상무부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장관**과 함께,

○ ❶韓美 상무장관 회담, ❷韓美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❸공급망·산업 대화(Supply Chain and Commercial Dialogue) **양해각서** 체결 등 양국간 **공급망·첨단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종래의 전통적 경제협력 관계를 넘어 **공급망·기술 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임

○ 금번 행사는 짧은 訪韓기간 중 **유일하게 양국 民·官이 공급망 충격 대응, 기술·투자 협력 등 실질적인 경제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로서, 우크라이나 사태,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개최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음

○ 특히,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訪韓하는 유일한 장관**으로서, 미국이 **반도체·이차전지** 등 핵심 분야에 대해 **한국과의 협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줌

1. 韓美 상무장관 회담 및 공급망 · 산업 대화 양해각서(MOU) 체결

□ (양국 협력의 중요성) 양국 상무장관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 첨단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종래의 **전통적 GVC가 약화**되어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 이는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만큼, **동맹국간의 협력이 매우 절실**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함

○ 특히, 韓美 양국은 지난 수십년간 안보동맹 관계를 유지해왔고, **한국의 첨단제조 능력과 미국의 기술 역량이 결합**하여 **공급망 위기를 함께 대응해 나갈 잠재력**이 매우 큰 만큼, **상호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함

○ 아울러, **韓 산업부와 美 상무부**는 **공급망·기술 협력** 뿐만 아니라, IPEF, **수출통제, 투자협력** 등 논의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는바, **두 부처가 양국을 대표해서 이러한 현안들을 주도적으로 진행**해 나가자고 강조

□ (IPEF) 양국 상무장관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 등을 위해서는 양국 협력을 넘어 **역내 국가간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며, 세계 경제의 핵심축 중 하나인 **인태 지역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함

○ 곧 출범을 앞둔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IPEF)는 **핵심품목의 공급망 안정화, 디지털 경제, 청정에너지·탈탄소** 등의 **광범위한 의제**를 포함하고 있어 **역내 미래지향적 협력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 그간 韓美 양국의 협력 경험을 기반으로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한 역내 경제 질서 구축**에 적극 함께 하기로 함

○ 특히, 이 장관은 한국은 **디지털, 공급망, 청정에너지** 등에서 강점이 있는 만큼, **관련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계획임을 강조함

□ (**韓美 반도체 협력**) 이 장관은 **반도체는 공급망·기술 및 경제안보 협력의 핵심 분야**로서, 우리 기업들의 對美투자로 양국간 공급망 협력의 핵심축이 되고 있는 만큼, **상무부가 우리 투자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혜택은 물론, 동반 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도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하였고,

○ '21.11월 합의한 **'韓美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SPD : Semiconductor Partnership Dialogue) 및 금번에 장관급으로 격상되는 **'공급망·산업 대화'**(반도체 관련 작업반 포함)도 적극 활용하여 **반도체 공급망·기술 협력**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제안함

○ 특히, 양국이 **시스템반도체 분야**(AI 반도체, 전력반도체, 첨단센서 등) 등 협력이 필요한 분야를 적극 발굴하고, **구체적인 협력 프로그램도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함

□ (**기타 이슈**) 이 장관은 금년은 **한미 FTA 발효 10주년**이 되는 해로서, FTA 발효 전후 10년 비교시 **한국의 對美 투자는 3배, 미국의 對韓 투자는 2배 가량 증가**하는 성과를 거둔 점을 언급하면서, 상호 투자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하고, 양국 **투자유치 기관간**(韓 코트라 IK, 美 Select USA)**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자고 언급함

○ 또한, 공급망 안정 차원에서 **한국산 철강에 대한 시장접근 여건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미국내 수요기업과 우리 현지 투자기업들의 **철강 수급 원활화**를 위해 232조 조치의 유연성 제고를 요청하고, 중장기적으로 탄소중립 등 양국 철강산업간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갈 것을 제안함

□ (공급망·산업 대화 양해각서) 양국 장관은 **첨단산업, 공급망, 디지털, 수출통제 등** 경제안보 이슈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첨단 산업 분야의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해 기존 국장급 산업협력대화를 **장관급으로 격상·확대**하는 「韓美 공급망·산업 대화」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 韓美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말미에 서명식 개최

○ **산업부와 상무부**는 연 1회 **韓美 공급망·산업 대화**를 개최하여 ▲디지털 경제, ▲첨단제조 및 공급망 회복력(반도체 등), ▲헬스케어 기술, ▲수출통제 등 **산업협력·경제안보 이슈**를 논의하기로 했으며,

○ **연구개발, 비즈니스 원활화** 및 여타 산업정책 전반을 논의하여, 양국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호호혜적인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모색하기로 함

□ 양국 장관은 금번 양해각서 체결이 한미 관계가 **첨단산업 공급망·기술 파트너십**으로 **한 단계 발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공급망·산업대화**가 양국간 공급망 협력의 핵심 플랫폼으로 역할을 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함

2. 韓美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 韓美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개요 >

○ 일시/장소 : '22.5.21(토), 10:00~11:15 / 서울 하얏트 호텔 산수룸

○ 참석 : (정부) 韓 산업부 이창양 장관, 美 상무부 지나 러몬도 장관(공동주재)
(기업) 반도체·배터리·청정에너지·디지털 분야 주요 기업

	기업명	참석자
韓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SK그룹	최태원 대표이사 회장
	LG그룹	구광모 대표이사 회장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한화솔루션	김동관 대표이사 사장
	OCI	백우석 대표이사 회장
	네이버	최수연 대표이사 사장
美	퀄컴	크리스티아노 아몬 대표이사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개리 디커슨 대표이사
	램리서치	티모시 아처 대표이사
	GM 코리아	카허 카젬 사장
	블룸에너지	케이알 스리다르 대표이사
	GE 코리아	김영제 총괄사장
	구글	스콧 버몬트 아태지역 사장
	코닝	웬델 윅스 회장

□ **양국 장관**은 「韓美 상무장관 회담」에 이어 5.21(토) 10시부터 **하얏트 호텔**에서 「韓美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공동 주재함

○ 동 라운드테이블은 양국이 지속 유지해온 **경제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분야의 양국 주요 기업인이 참석하여, **교역·투자 확대 등 상호호혜적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함**

□ **이 장관**은 "올해는 **한미 FTA가 발효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양국 관계가 **교역·투자 협력**을 넘어 **공급망·기술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고 있는 시기에 **양국 기업인**들과 함께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고,

○ "글로벌 경제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공급망 협력 강화 및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와 기업들간의 협력 및 공동 대응**이 절실하며, 특히 **한국의 제조역량과 미국의 기술역량**이 **상호호혜적으로 결합된 협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함

□ **양국 기업**은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청정에너지, 디지털** 등의 분야에서 **한미간 공급망 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실천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는바, **공급망 현 상황 진단, 반도체 장비 수요 급증 대응방안,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협력방안, 디지털 경제 협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함

□ 아울러, 양국 기업은 **韓美 투자 협력 확대**가 **공급망 대응, 첨단 기술 협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였으며, **최근 양국간 투자는 아래와 같은 특징**을 지님

○ 첫째, 우리 기업의 對美 투자는 미국 내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핵심산업의 美 시장 선점과 공급망 협력 확대**를 위한 **선제적 투자의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의 우수한 첨단제조능력과 미국의 기술역량** 등이 시너지를 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둘째, 우리 기업은 **국내 공급망의 안정적 생태계 구축, 기술·인력·인프라 강화** 등을 위해 **국내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 일례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최대 투자처는 한국**으로서, 실제 투자의 많은 부분을 국내에 투자하고 있으며, 작년 「**K-반도체 전략**」 발표 이후 **반도체 업계는 '30년까지 약 510조원을 국내 투자** 계획

- 지난 5.18일 **현대·기아차**도 **'30년까지 국내 전기차 생산설비 확충, R&D, 인프라 구축 등에 약 21조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내 전기차 생태계를 고도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음

○ 셋째, **美 기업** 또한 **반도체, 바이오, 디지털 등 첨단분야**에서 **견고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한국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음

- **(반도체) 램리서치**는 **반도체 장비 연구개발 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온세미컨덕터**는 **2억불 규모의 전력반도체 생산 확대** 투자, **듀폰**은 **2,800만불 규모의 EUV용 포토레지스트 제조시설 투자**를 이행

- **(바이오) 싸이티바**는 **5,250만불 규모의 고부가 세포배양백 생산 시설 투자를 발표**하였고, **써모 피셔**는 금번 **투자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美 **바이오 기업의 對韓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

- **(디지털) 넷플릭스**는 금번 정상회담 계기, 가상현실 연출기술을 활용한 **특수효과 영화세트 건립을 위한 1억불 투자**를 신고('22.5.20)하여, **디지털 컨텐츠 제작 협력**과 함께 virtual production **기술 이전 효과**가 기대됨

3. 써모 피셔 싸이언티픽社 양해각서 체결식

□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별도로 **생명과학 원부자재·과학장비 분야 글로벌 기업**인 **써모 피셔 사이언티픽社**와 **對韓 투자협력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 (일시/장소) 5.21(토) 14:00 ~ 14:30 /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
(참석)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써모 피셔 Gianluca Pettiti(잔루카 페티티) 수석부사장 등

○ 동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써모 피셔 사이언티픽**社는 **한국을 바이오 원부자재 생산공장** 등의 건립을 위한 **주요 투자처로 고려**하고, **정부**는 동 프로젝트의 성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 안 본부장은 "써모 피셔 사이언티픽社의 **세포배양배지**는 **바이오 의약품 생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원부자재**로서, 향후 동 투자 프로젝트가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 "작년 **싸이티바(美), 싸토리우스(獨)의 투자**에 이어 **써모 피셔 사이언티픽**社의 투자 성사시 **한국을 글로벌 백신 허브로 육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전망함

- "특히, **외국 첨단산업의 유치**는 **공급망 안정화 전략의 핵심**으로 앞으로도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 이듀정 사무관(☎ 044-203-565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